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2025. 4. 30.(수) 09:00

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회 결성 및 협의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산 권역의 산양삼 특화 품종 육성과 약리 성분 기반의 우수성 검증 등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책임자	소 장	양희문 (054-630-5600)
		담당자	연구사	엄유리 (054-630-5648)